

자문밖 동네 골목 탐방 춘원 이광수 별장 터

코로나 19로 어수선하고 무더운 여름 홍지동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 춘원 이광수 별장 터를 찾았다.
지금도 개인 소유자인 춘원의 별장 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날은 특별히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이 함께 해주었다.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87호 춘원 이광수 별장 터 지금은 개인 소유이다.

김달진 관장_ (이하 김달진) 언제부터 별장 터를 소유하셨는지 소유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태현 소유주_ (이하 김태현) 이 집을 구하기까지 5년 동안 동네 구석구석 안 돌아다닌 곳이 없어요. 원래는 구파발의 한옥마을로 갈 예정이었지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집이 있다며 한번 보라고 권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처음에는 춘원 선생과 관련 있는 집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집을 저 말고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은 이 집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려고 했대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집을 사게 되면 이 집과 터를 그대로 지키고 싶다고 전 주인분께 말씀드렸고 전 주인분이 저에게 팔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집터를 설명하는 소유주

김달진_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요? 처음 모습과 지금 모습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김태현_ 이 집의 터는 춘원 선생이 살던 터가 맞기는 한데 원래의 건물은 유실되었고, 1972년도에 전 주인분께서 새로 지은 집이에요. 1970년에 전 주인분이 이 집에 처음 오셨을 때 여기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원래의 집을 헐고 당시에 유행하던 2층 양옥집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 문인들이 찾아오셔서 전 주인분을 설득 시켰고 1972년도에 원래의 집 터 ‘ㄷ’자 그대로 한옥으로 다시 지었대요.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가 ‘이광수 별장 터’입니다. 그리고 춘원 선생 시절 그 당시부터 있는 것은 1934년에 심은 마당에 있는 향

나무와 감나무 그리고 집 뒤쪽에 있는 우물입니다. 덧붙여 1930년대 조선인 재력가 및 문인들의 도성 밖 별장 건립의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김달진_ 그렇다면 춘원 선생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에 이곳에서 거주하셨는지요? 그랬다면, 이곳에서 탄생한 주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현_ 춘원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귀국 후 사용하신 별장이라 주요 작품을 이곳에서 집필하지는 않았어요. 이곳에서 쓰신 대표적 작품은 수필 형식의 ‘성조기’와 ‘육장기’입니다. ‘성조기’는 이 집을 지을 당시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글이고 ‘육장기’는 이 집을 떠날 때의 과정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평소 불교에 심취했던 춘원 선생이 이곳에서 법화경을 완역했다고 합니다.

김달진_ 이 집에 관한 글인 ‘성조기’와 ‘육장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해주세요.

김태현_ 성조기는 이를 성(成), 지을 조(造), 기록할 기(記)해서 성조기(成造記)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을 짓는 과정들을 기록한 수필이고 이 집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벽이 어떻게 어떤 인부가 일을 잘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인부는 말을 재미있게 잘 한다 등등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우물을 발견하고 식구가 사용하기에 넉넉하다며 엄청 좋아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육장



춘원이 이곳에 와서 발견한 우물

기에는 춘원 선생이 이 별장을 팔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그에 대한 마음 아픈 부분들과 애석한 표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보시다시피 북악산으로부터 인왕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이 너무 좋은데 그 내용도 성조기에 있어요.

백악으로 아침해가 올려뜨라 할 때에는 석가봉에 먼저 황금색 뱀이 비초인다. 그리고는 문수, 관음, 보현에 비초이고 다음에는 인왕산의 등인 영취(靈鷲)의 뺨에 비초인다. 그런 뒤에는 홍륜(紅輪)이 내 집을 향하고 떠 오른다. 매연도 진애(塵埃)도 없는 청정한 궁중에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을 과연 광명이요 장엄이요 미관이요 위관(偉觀)이다.

내 집에는 하늘과 별이 풍부한 모양으로 일광과 월광이 풍부하다. 백악에서 해가 올라 인왕산을 넘어 서산의 해수관

음 뒷 봉(峰)을 넘을 때까지 내 집에 든다. 그래서 환하다. 낮에는 불을 지피지 아니하여도 방이 덥다. 나는 일광의 공양을 받는 것이다. 서산의 초생달에서부터 하현달까지 내 집의 창과 뜰에 비초인다.

〈성조기 일부 발췌〉

김달진 종로구 내에 교회동 가옥이나 박노수 가옥처럼 술관 혹은 박물관으로 운영되는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이곳 춘원 선생의 별장 터 역시 모두가 볼 수 있게 개방 또는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태현 저희 집에 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집 터 기운이 너무 크고 좋다고 한 가정이 누리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터뷰 중인 소유주(좌)와 김달진 관장(우)

나는 돌 틈으로 솟는 물, 그것은 지난 밤 동안에 굻둑이 고였다. 양추하고 세수하고 燭불을 켜놓고 모든 聖人의 名號를 부르고 聖人의 글을 읽는다. 이 때에 나는 모든 罪業을 벗어나서 聖人과 하나가 되고 宇宙와 하나가 됨을 느낀다. 나는 내 肉體의 制限과 五欲, 六識의 制限을 벗어남을 느낀다.

성조기 중

서 바로 아랫집으로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고 이 별장 터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했어요. 미국에 계시는 춘원 선생의 막내딸 이정화 박사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사유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고 저희 가족이 다시 살고 있지만 지금도 1년에 한번 춘원 포럼이 열릴 때마다 한국에 오셔서 저희 집에 방문하시곤 해요.

김달진 마지막으로 다른 집이 아닌 춘원 선생의 별장 터를 소유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곳에 와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자문박 지역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김태현 아시다시피 춘원 선생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곳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오픈하게 된다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공간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춘원 선생의 친일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문학 작품으로서 그리고 근대문학사에서의 선생의 작품은 잊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_편지호 / 사진_조은강



춘원이 1934년에 심은 향나무